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010년인 올해는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0년 12월 8일 밤 내설악 백담사에서 유신론은 탈고했다. 이 책은 불교개혁을 논하는 모두에게 큰 깨침을 주는 목탁소리였다. <조선불교유신론>이 오늘에도 주목되는 이유는 민족과 불교의 생존을 위한 불교의 개혁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은 예견이라도 했듯이 <조선불교유신론> 집필을 마치면서 마지막 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아우여 형이여. 들리지 않는가. 이는 파리 소리가 아니라 닭의 울음입을!”이라고 했다. 아직도 한국불교는 닭의 울음이 들리는 새벽이 왔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지배당하고 있기에 이 책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한용운은 일제의 식민지라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민족과 불교의 생존을 위해 불교를 개혁하려 했고 이는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구체화했다. 즉 불교는 사회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사상이지만, 당시에는 불교가 전체적 사회개혁을 할 수 없으므로, 제도적·사상적인 면에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 17장으로 구

성된 <유신론>에서 제1~4장은 만해 스님이 이해하고 있던 불교관에 바탕을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밝힌 부분이다. 종교요, 철학인 불교는 미래문명의 원료품 구실을 할 수 있게 될 것과 불교의 가르침이 평등주의와 구제주의에 입각해 있음을 천명했다. 그리고 제5장부터는 이어서 승려교육, 제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불교의 모든 분야에 걸친 비종교적·비시대적·비사회적인 인습을 타파하고 혁신해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교 본연의 자세로 복귀하고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발휘 시키고자했다. 한국불교가 현대불교로 나아가길 방향을 제시코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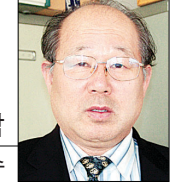
닭의 울음 들리지 않는가!

참선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다. 불교로 하여금 잡다한 민족종교 또는 민족 자결의 가치를 지향케 하려는 실천적 입장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시대의 ‘고(苦)’를 극복하고자 했다.

<조선불교유신론>의 집필 배경은 조선 불교의 현상을 타개하려는 열렬한 실천적 의도에서였다. 그는 훌륭하게 유신하는 자는 훌륭하게 파괴하는 자라 하여, 낡은 습관을 새로운 세대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임을 역설했다. 당시의 한국 불교를 다각적으로 비판을 가했다는 점, 보수적인 불교계에 대한 혁명적인 개혁과 신앙의 주제인 대중이 불교를 통해 주

제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불교의 모든 분야에 걸친 비종교적·비시대적·비사회적인 인습을 타파하고 혁신해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교 본연의 자세로 복귀하고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발휘 시키고자했다. 한국불교가 현대불교로 나아가길 방향을 제시코자 했다.

만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제시하는 불교적 이상은 무질서한 불교교단의 통제를 주장한 것이다. 이른바 불교현대화를 통한 대중 불교 운동이었다. 그의 실천적 불교정신을 제시된 그의 사상은 자아의 발전, 평등주의, 이타주의, 불교의 구제주의(求世主義) 등으로 이 후 그의 모든 행동적·사상적 발전의 토대가 됐으며 지금 세계 인류를 위해서도 유효하다. 그가 남긴 <조선불교유신론>은 여전히 우리의 미망(迷妄)을 깨우는 목탁으로 크게 들려온다.



전보삼 철학박사, 신구대학교 교수

만해기념관에 가다

만해의 삶 사상 일목요연 ‘조선불교유신론’ 초판본 전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만해기념관은 국가 지정 현충시설로, 전보삼 관장이 남한산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1981년 설립했다.



만해기념관 앞에 놓인 조각가 민복진 작 만해상.

만해기념관은 1979년 만해사상연구회가 발족된 이후, 1981년 10월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 처음 설립됐다. 1998년 5월 현재의 만해기념관으로 탄생했다. 대지 520평, 연건평 120평 규모로 전시실, 교육관, 자료실 등을 갖췄다. 또 경내에는 만해 스님의 ‘나뭇배의 행인’ 시비와 조각가 민복진 작품 ‘만해 흉상’이 전시돼 있다.

이와 함께 만해기념관에는 만해 스님이 평소 즐겨보던 <음빙실문집> <영화지략> <월남망국사> 수탁본들과 <님의 침묵> 초간본 및 100여 종의 판본 등이 전시돼 있다.

또한 <정신 강의 체근담>(1917) 초간본과, 만해의 친필유묵,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각종 신문자료, 1962년 정부가 추서한 대한민국 건국 공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훈기번호 제25호), 만해 관련 연구, 학술 논문 600여 편이 정리돼 있다. 1913년 5월에 발행된 <조선불교유신론> 초판본도 전시돼 있다.

전시장은 만해 스님이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을 비롯한 다양한 책을 통해 어떻게 <조선불교유신론>이 탄생하게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는 관람객들이 만해 스님이 독립운동가, 승려, 시인 등으로 어떻게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전보삼 관장은 “만해기념관은 관람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일깨워주며 만해 스님의 예술혼과 삶의 자취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글 쓰는 순서.....

-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중단 및 사찰운영
5. 계율
6. 신행
7. 교육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만해기념관에는 <조선불교유신론> 초판본이 전시돼 있다. <조선불교유신론> 초판본 표지는 석전 박한영 스님의 글씨체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만해 한용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한 지 100주년을 맞았다. <조선불교유신론>은 만해 스님의 불교개혁정신을 대표하는 저술일 뿐만 아니라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저술이다. 만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제기한 파격적인 불교 개혁 및 유신의 내용들은 면면이 살아 숨 쉬며 근현대 한국불교의 고비마다 나침반과 등대 역할을 해왔다. <조선불교유신론> 집필 100주년을 맞아 만해 스님의 눈을 통해 현대 불교를 진단해 본다.

‘조선불교유신론’의 내용과 위상

<조선불교유신론>은 만해 스님이 불교개혁의 당위성, 지향, 대안을 집약해 1910년 여름에 쓴 불서로 근대불교를 상징한다. 1913년 5월 불교서관에서 펴낸 <조선불교유신론>은 한국 근현대 불교를 개혁하려면 불교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책이다.

스님은 이 책자를 발간하기 이전 불교를 통한 근대화에 나서겠다는 도전을 시도했다. 1903년, 백담사에서 출가한 만해는 승려의 기본 소양을 익힌 후에는 백담사의 본사인 건봉사 강원에서 수학했다. 그 후 스님은 문명의 중심지인 서양을 탐구하고 싶은 열정으로 세계일주를 단행하고, 서울에 세워진 불교계 최초의 근대학교인 명진학교에서 수학했다. 1908년 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조동종대학에서 유학하면서 일본과 일본불교의 현장을 확인했다.

이렇듯이 문명과 현실의 본질을 체득하고 1908년 10월 만해 스님은 귀국했다. 그는 불교가 사회와 민족의 중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과감한 유신, 개혁을 단행해야 함을 자각했다. 그래서 스님은 불교의 유신과 개혁을 위한 자신의 소신, 입장, 대안을 옹골차게 피력하는 저술작업을 했으니 그것이 바로 <조선불교유신론>이었다.

<조선불교유신론>은 17개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다. 그는 서론, 불교의 성질, 불교의 주의, 불교유신은 파괴로부터, 승려의 교육, 참선, 염불당의 폐지, 포교, 사원의 위치, 불가에서 송배하는 소회(齋繪·탱화), 불가의 각종 의식, 승려의 인권회복은 생산에서, 불교의 장래와 승니의 결혼문제, 사원 주지의 선거법, 승려의 단결, 사원의 통합, 결론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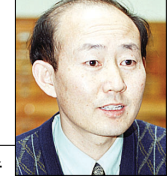
불교 사상 교육 의식 등 17개 주제 담아 ‘유신론’ 불교개혁 이론 제공한 디딤돌

만해 스님은 우선적으로는 불교가 사회와 문화의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불교의 이념과 근대 이념과의 부합에서 찾았다. 그러나 스님은 불교가 근대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관행, 의식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즉 구태의연한 교육, 참선, 염불, 사원의 위치, 탱화 등을 개혁 혹은 제거를 주장했다. 그렇지만 만해 스님은 이 책에서 불교의 개혁을 주장함과 동시에 파격적인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승려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즉 인간의 윤리, 국민의 증대, 포교의 관점에서 승려결혼을 방편적으로 허용하자

는 것이다. 만해는 승려의 인권과 불교의 존립의 차원에서 승려결혼을 주장했다. 이런 성격은 승려 노동을 통한 승려 인권회복을 주장한 데에서도 나타났다. 승려들의 단결과 사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주장했는데 이는 승려와 불교의 체질이 근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조선불교유신론>의 내용은 당시 불교계에 격심한 찬반 양론을 가져왔다. 거시적으로 보면 근대 불교에서 만해 스님의 주장은 상당 부분 수용됐다. 만해는 1944년 입적할 때까지 유신론의 개혁이론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실천했다. 만해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제기한 주장, 즉 대중불교론은 학인, 청년학승을 통해 전불교계에 퍼져 나갔다.

<조선불교유신론>은 해방 이후에도 불교와 중단을 개혁하려는 학인, 재가불자들의 필독서가 되어 불교개혁의 이론을 제공한 디딤돌이었다.



김광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만해기념관. 기념관에는 만해 스님과 관련된 유품, 저서, 관련 서적 등이 전시돼 있다.



▶ 법사 방필석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신생아 작명

개명. 아호. 상호 역학개인지도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방필석 대외활동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3회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現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수상서울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썩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9-8259 (빨리오구), FAX 730-8528

전화신청환영 .국내외 우편발송 우리은행/계좌번호: 306-07-194422 예금주: 방필석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동용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방필석

- 여유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濟人是必無濟人之이요
□여유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濟人改名은必無改名之時라